

전주시 “어르신들 집에서 노후를”

초고령사회 대비 ‘통합돌봄사업’ 실시...관련 과 신설

통합사례관리사 19명 배치해 ‘전주형 돌봄체계’ 구축

전북 전주시는 올해 ‘어르신들이 정든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함께해서 행복한 전주 만들기’라는 비전으로 통합돌봄사업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건·의료, 복지·돌봄, 주거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돌봄총괄팀 △복지지원발굴팀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의 4개 팀으로 구성된 ‘통합돌봄과’를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치매노인 돌봄 모델 개발 △노인 자기결정권 존중 △빈집을 활용한 그룹홈 등 다양한 통합돌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완산구 각동에 통합사례관리사 19명을 배치해 노인들이 정든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전주형 돌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선도하는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복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미세먼지 농도 측정 위해 떠오르는 드론 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 감시 시연회가 열린 9일 전북 전주시 온고을 정례식장 주차장에서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가 인근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굴뚝으로 드론을 띄워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대기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순창군, 올해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만18~39세 5명·만40~64세 6명 선발 예정...최대 1년 지원금

전북 순창군은 ‘2020년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청년취업지원(만18~39세) 5명과 신중년취업지원(만40~64세) 6명을 선발한다.

이들에게는 정규직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월 50만~65만원, 신중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청년·신중년층 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300만원(신중년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은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명

이상(신중년 5명 이상)의 고용보험법 가입기업으로 상시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채용 계획이 있고, 월 급여 18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6일까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양병삼 경제교통과장은 “청년·신중년 취업지원을 통해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의 안정된 고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창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전북대병원, 차세대 신약 임상시험 기술 개발

복지부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기관 선정

전북대학교병원(원장 조남천)은 올해부터 ‘차세대 신약 초기 임상시험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에서 공모한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중 3세부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스마트 임상시험 기반기술을 통한 임상시험 효율화 및 신약개발 고도화를 목표로 주관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과 7개의 세부연구기관이 협업하고 있다.

3세부 연구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이 추진하는 ‘차세대 신약 초기 임상시험 기술 개발사업’은 마이크로바이옴 신약과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신약 임상시험에 활용되는 초기 임상시험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는 1차년도 4억9400만 원, 2차년도 6억8900만 원, 3차년도 6억8900만 원이 투입돼 진행된다.

조남천 병원장은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과 신약개발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과제수행에는 건국대학교병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분당차병원 등도 참여한다.

연구는 1차년도 4억9400만 원, 2차년도 6억8900만 원, 3차년도 6억8900만 원이 투입돼 진행된다.

조남천 병원장은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과 신약개발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안군 “농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2월1일부터 접수

전북 진안군이 전국 광역자치체 최초로 전북도가 도입한 농민 공익수당을 2월1일부터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인구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이상 경작하는 농가다.

지급액은 연 60만이며, 진안고원행복상품권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4월30일까지 하면 된다.

5월부터 9월까지의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확인 △도의 전출 여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 등을 거쳐 최종 9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의 첫 걸음인 만큼 홍보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열차표 값 절반 지원”...익산시, 인구 늘리기 안간힘

전북 익산시는 출퇴근 열차 승차권 운임비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으로 인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10일 또는 1개월 단위 정기승차권을 구입해 사용하는 근로자는 나중에 구입 금액의 절반을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철도 교통망을 갖춘 지역 특성을 살린 제도여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익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는 주소를 전입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1년 이상 타 지역에



익산역에서 표를 사는 시민들

주소를 두고 있다가 익산으로 전입한 고등학생에게 학기별로 10만원씩 최대 60만원을 준다.

대학생(대학원생)에게 주는 지원금도 기존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높였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